



2010 은평구립도서관 · 증산정보도서관 글쓰기 공모전

# 입상작 모음집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립도서관 · 증산정보도서관



## <발 간 사>

2010년 은평구립도서관과 증산정보도서관이 주최한 글쓰기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의 글제는 많은 분들과 독서와 도서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도서관과 함께한 2010년을 추억하고자 '도서관과 나' 혹은 '도서관과 연관된 에피소드'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글제와 맞게 일상 속에서 누구나 도서관에서 한번쯤은 겪어봄직한 도서관과 관련된 재미난 글과 열악한 시설 여건상 작은도서관을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겪은 어려움을 그린 가슴 찡한 글이 응모되어 도서관장으로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공모전이 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은평구와 한국문인협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은평구립도서관과 증산정보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열린 광장이 되어 지역사회의 경쟁력 있는 지식을 생산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 12.

은평구립도서관장 **엄 무 성**  
증산정보도서관장 **김 규 순**

## 심사위원 소개

소설가 김 지 연

약력 現 은평문인협회 명예회장  
제10회 한국소설 문학상 수상, 월탄 문학상 수상  
제3회 남명문학상 수상, 제11회 펜 문학상 수상  
(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역임

저서 장편소설「산배암」「산울음」「야생의 숲」  
「히포크라테스의 연가」「흑색병동」등 다수

중편소설「아버지의 장기」「불임여자」「산죽」등 다수

단편소설「산가시내」「산정」「어머니의고리」등 다수

# 2010 은평구립도서관 · 증산정보도서관 글쓰기 공모전 시상식

2010. 12. 26.



은평구립도서관장 인사말씀



수상자 시상



수상자 시상



성인부 대상작 낭독



청소년부 대상작 낭독



수상자 기념 촬영



## 〈심 사 후 기〉

심사위원 김지연

(소설가, 은평문인협회 명예회장)

예심을 통과하여 본심으로 넘어온 작품은 총 48편이었다.

이번 글제는 도서관과 나, 혹은 도서관과 연관된 에피소드 등이 주제로서 체험적 내용의 글들이 많았다.

경험하지 않으면 쓰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인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 표절하는 경우가 드물어 글들이 순수했다.

특히, 성인부문의 작품들과 청소년부문이 경험도 다양하지만 문장력이나 내용구성 부문이 예년에 비해 우수하여 돋보였고, 아동 부문은 침체된 감이 있었다.

청소년부문 대상은 「도서관 찾아가기는 어려워」, 성인부문 대상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이야기」가 선정되고 아동부문은 부득이 우수상과 장려상만으로 격려키로 했다.

「도서관 찾아가기는 어려워」는 초등교 3학년인 주인공이 7살 동생을 데리고 처음으로 언덕위에 세워진 도서관을 찾아가던 날의 어려움을 시작으로 서술해나간 글이 진실 되고 아름다웠고, 「작은도서관 그리고 이야기」는 도서관의 계단 아래서 서성거리는 어린 장애아를 위해 봉사해주는 화자의 마음과 책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의 사랑스런 마음이 잘 드러난 좋은 글이었다.

청소년부의 최우수상 「그 여름날의 도서관」도 깔끔했고 성인 부문의 최우수상 「내 청춘의 공간 도서관」도 우수했다.

심사기준은 언제나 그러하듯 감동을 주는 글을 우선 중시한다는 것을 강조 하면서 모든 수상자들의 건필을 빈다.

## 차례

### 성인부

|      |     |                   |
|------|-----|-------------------|
| 대상   | 이민정 | 작은도서관 그리고 이야기     |
| 최우수상 | 박수현 | 내 청춘의 공간 도서관      |
| 우수상  | 정민교 | 뒷문, [closed]      |
| 장려상  | 맹춘영 | 도서관에서 생긴 신선한 착각   |
| 장려상  | 이혜수 | 엄마와의 조잘 조잘을 위하여   |
| 장려상  | 이선영 | 책을 읽는 즐거움이 시작되는 곳 |
| 장려상  | 엄양현 | 일 하는 기쁨           |
| 장려상  | 윤 솔 | 도서관에서 생긴 에피소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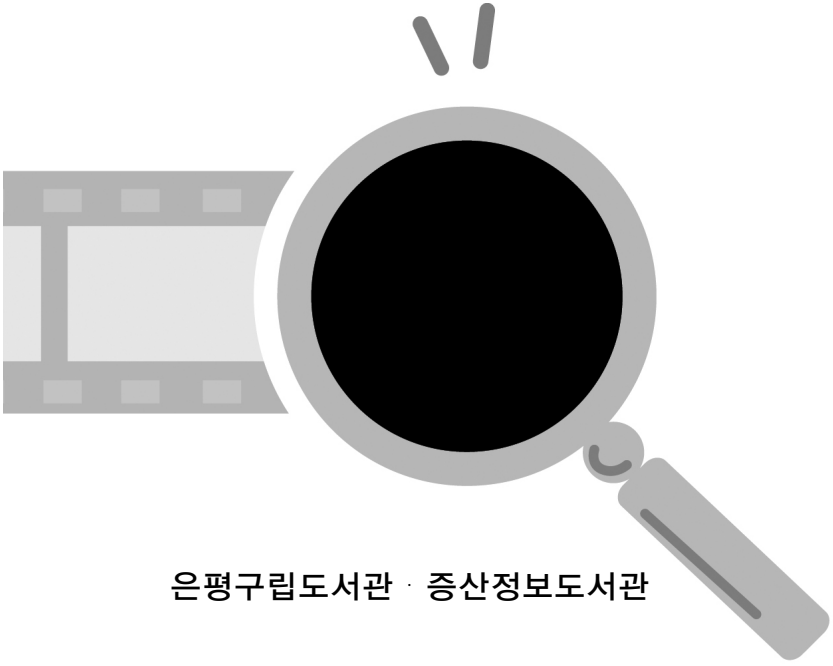
### 청소년부

|      |     |                |
|------|-----|----------------|
| 대상   | 조 윤 | 도서관 찾아가기는 어려워! |
| 최우수상 | 신용섭 | 그 여름날의 도서관     |
| 우수상  | 도민성 | 작지만 큰 상림마을 도서관 |
| 장려상  | 김진휘 | 나는 도서관과 함께 자랐다 |
| 장려상  | 김승욱 | 도서관에서 생긴 일     |
| 장려상  | 우성관 | 도서관에서 생긴 에피소드  |

### 아동부

|     |     |                      |
|-----|-----|----------------------|
| 우수상 | 송문영 | 원숭이가 된 나             |
| 장려상 | 이동훈 | 서오름 에피소드             |
| 장려상 | 김다빈 | 에피소드                 |
| 장려상 | 김근영 | 역사와 책이랑 놀자 프로그램 에피소드 |





은평구립도서관 · 종산정보도서관

## 작은도서관 그리고 이야기

---

### ■ 성인부 대상 이민정

사람마다 정해진 인생이 있다면 나는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 같기를 바랍니다. 무리 속에 섞여있으면 각광받지 못해도 모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며 그저 존재로서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평범함을 바랍니다. 그래서 었을 겁니다. 집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큰 시설의 구립도서관 보다는 작지만 평범한 작은 도서관이 더욱 마음 편했습니다.

우람한 서가들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숨 막힐 듯한 곳 보다는 아담한 서가에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이는 작은 도서관의 모자란 듯하지만 정감 넘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날도 나는 오전 일을 마친 후 아담하고 따뜻한 그곳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작은 도서관으로 익숙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가 도서관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 내 눈 속으로 어린 남자아이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쯤 되어 보이는 체구의 아이는 도서관

입구 계단 앞에서 뭉가를 망설이는 듯 계단을 오르지 않고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만한 조카를 둔 나는 머뭇거리며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얀 얼굴에 커다란 눈망울의 아이는 얼마 되지 않는 높이의 계단을 막막한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곁에 온 낯선 내 모습에 놀랐는지 커다란 눈을 더욱 둥그랗게 치켜뜨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내 내가 자기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챘는지 아이다운 맑은 목소리로 자기는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을 오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있는 모습에선 알아챌 수 없었던 아이의 불편이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편함을 낯선 내게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나는 아이를 계단 초입에 마련된 작은 의자로 데리고 가서 앉혔습니다. 아이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에 비해 선천적으로 짧아서 계단을 혼자서 오르는 일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엄마가 빌려다 주시곤 하는데 오늘은 자기도 다른 친구들 처럼 혼자서 도서관에 와서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계단을 보고 한참을 머뭇거렸다고 했습니다. 계단 앞에서 막막했을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이내 씩씩한 목소리로 오늘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보물섬이 읽고 싶다며 자기는 여행을 하고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책을 가장 좋아한다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의자에 앉아 기다릴 것을 부탁한 후 계단을 올라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서가 쪽으로 몸을 옮긴 나는 아이가 읽고 싶어 한 보물섬을 찾아 대출해 돌아왔습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아이의 말에도 굳이 동화구연이라도 하듯 내가 낼 수 있는 한 가장 낭랑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보물섬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낮선 내 모습이 신기했는지 내 얼굴과 책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야기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책읽기를 마치자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책을 바라보며 보물섬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어차피 내겐 필요 없는 책이니 오늘은 집에 가져가서 재미있게 읽고 내일 의자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자기 집은 아이파크아파트 000동 000호라며 자신도 약속을 지킬 테니 내게도 꼭 나오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서 있을 땐 몰랐던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아이의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작은 도서관에서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모래알 중에 유독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알을 만나 친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에게 불편했을 계단이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를 만들어 준 것 같아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이를 만나러 나올 땐 조카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000과자를 사오리라 마음먹었습니다.

## 내 청춘의 공간 ‘도서관’

---

### ■ 성인부 최우수상 박수현

20대. 아마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반짝 반짝 빛나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체적으로도 젊고,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시기. 그래서 ‘청춘’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 20대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이쯤이라면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경험을 했을 나이이지만, 저는 도서관에서 저의 이 빛나는 20대의 절반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도서관을 다녔던 탓입니다. 이번에는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드나들게 된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며 몇 년의 경력을 쌓았고, 어떤 친구들은 결혼을 하여 임신 중이기도 합니다. 제 시간은 도서관 속에서 대학 졸업하던 그 나이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모두들 회사나 학교를 향해 바쁘게 뛰어갑니다. 저에게는 유독 그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시간에 쫓겨 총총 뛰어가는 그 걸음이 너무도 부러웠기 때문

입니다. 몇 년째 보고 있는 책을 주섬주섬 챙겨서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남들처럼 매일 가야만 학교나 직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에 매일 가다보면 나도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덜 무겁습니다. 이런 시간을 몇 해 보냈습니다. 나도 말쑥한 옷차림으로 출근시간에 맞춰 갈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런 어두침침한 옷차림으로 도서관만 다녀야 하는 걸까, 왜 이런 20대라는 찬란한 시기에 이렇게 빛을 밝히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에 가면 저와 같은 20대에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어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 위안을 받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구립도서관은 지정좌석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보통 자기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탓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간에 도서관에 와서 비슷한 시간에 도서관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좌석도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 앉고, 식당에서도 밥을 먹을 때 비슷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안면은 익힐 정도입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몇 번 떨어진 시험 실패의 경험과 홀로 공부하는 그 시간이 원인이겠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창에 비치는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하늘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저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져 있는데 마음 조리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서러운 탓입니다.

어느 때와 비슷한 수험생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시험은 늦가을에 치러지기 때문에 9월부터는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극도로 예민하던 10월 초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앞과 옆이 막힌 책상에 앉아 몇 년째 보고 있던 전공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내년에는 이 햇살을 꼭 즐기자. 힘내, 잘하고 있어. 다 왔어.” 라고 하는 몇 해 전 제 자신이 써 놓은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번인가 보았던 책이었기에 그 낙서도 여러 번 봤지만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햇살을 받고 반짝이던 그 날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서 울어버렸습니다. 한 방울 떨어진 눈물이 말 그대로 폭풍처럼 쏟아져버렸습니다.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참으려고 애썼지만 이미 제 의지를 넘어 선 채 어깨마저 들쭉거렸습니다. 빨간 눈을 가리면서 화장실로 뛰쳐나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참으로 처량해 보여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한 참을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리에 돌아와 보니 짧은 글이 적힌 쪽지와 캔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제가 우는 모습에 마음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런 마음 상태는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 두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늘 같은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분



이셨겠지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받은 그 짧은 편지와 캔 커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약해져있고, 부서져버린 제 마음이 한데 모여 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지 못해도, 친하지 않아도, 매일 도서관에서 얼굴을 보며 한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청춘들에게 모한 동질감과 유대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마음 따뜻한 그 분의 배려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화단에 수분 공급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흘린 눈물도 이제는 흘리지 않고,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20대의 소중한 공간인 도서관은 저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고, 책을 통해 지식을 전해주었으며, 세상은 외롭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년을 준비한 교원임용고시의 막을 내렸습니다. 실패로 끝난 덕분에 또 다른 준비를 위해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20대 제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 도서관에서 20대의 마지막 한 해를 보내게 될 2011년을 위해 다시 한번 고군분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20대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정말 걱정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청춘을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 뒷문, [Closed]

---

### ■ 성인부 우수상 정민교

학기말 시험이 닥친 때였다. 열람실 입구 복도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심코 문을 보았다. [Closed]라는 스티커가 큼지막하게 붙여져 있었다. 뒷문이었다. 뒷문과 앞문은 거리가 꽤 났다. 나는 약간 짜증을 내며 앞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열람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훅-,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감쌌다. 라디에이터의 열기만은 아닌 듯했다. 그것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열기였다. 자리를 차지하고 다닥다닥 앉은 사람들…… 책상 위엔 알 수 없는 두꺼운 책들(이른테면 교과서나 법전, 각종 수험서, 사전 등등)과 담요, 검은 봉지, 핫팩, 필통, PMP 등 공부에 필요한 잡다한 물건들이 올려져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나를 긴장하게 했다. 또한 집에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늦게 온 나를 반성하게 했다. 생각해보니 수능이 코앞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고시나 여타 수많은 이름의 시험이 겨울모기처럼 위협적으로 윙윙 소리를 내며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때였다. 수능은 봤

지만 나의 미래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에 괜스레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빈자리를 찾기 위해 책상 사이의 통로를 돌아다녔다. 빈자리는 눈에 띄지 않았다. 뒷문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빈자리 하나를 잡을 수 있었다. 내가 아까 밖에서 열고 들어오려고 했던 [Closed]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던 뒷문. 안쪽에도 바깥과 똑같이 [Closed]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 그 스티커를 보며 나는 자리에 앉았다.

열람실의 분위기에 겨우 익숙해진 내가 공부해야 할 곳의 맥을 짚고 막 빠져들려던 찰나, 불현듯 뒷문이 콧망고 내 의자를 부딪쳤다. 반쯤 열린 문으로 사람의 얼굴이 쑥 나타났다. 나는 얼떨결에 의자를 책상으로 바짝 당겼고(그럼에도 틈은 좁았는데) 그 좁은 틈으로 여고생 한 명이 킁킁 대며 들어왔다. 당연히 뒷문은 쇠고리가 걸려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으며 그러고 보니 문이 잠겨있지도 않았다. 나는 불시의 습격에 맥을 못 추다가 쇠고리를 걸고 문을 잠갔다. 굳이 좁은 틈으로 그렇게 들어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시 우두망찰해 있다가, 겨우 책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다. 그러나 여고생의 습격은 서막에 불과했다.

책을 몇 줄 읽어내려 갈 때마다 밖에서 문고리를 돌리는 쇠소리가 적막을 깼다. 문고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잠겨있다는 것인 줄 알 텐데도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몇

번 더 문고리를 돌렸고, 이내 포기했다. 포기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 유독 사납게 복도를 울렸다. 분명히 [Closed]라는 스티커를 봤을 텐데……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밖에서의 습격보다 안에서의 습격은 더 가관이었다. 내 책상과 의자가 뒷문에 거의 밀착돼 있기 때문에 뒷문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본인과 내가 서로 불편할 거란 걸 느낄 텐데도 굳이 뒷문으로 나가려 했다. 그들은 쇠고리를 풀고 잠긴 문을 열고 좁은 틈을 킁킁대며 빠져나갔다. 뭐가 그리 바쁜 건지, 뭐가 그리 급한 건지…… 뒤쪽 자리에서는 먼 앞문까지 걸어 나가는 귀찮음보다 차라리 좁은 틈을 빠져나가는 작은 불편함을 선택한 것으로 보였다.

나의 몸과 마음은 더욱 불편 불안해졌다. 첫째로 의자를 책상으로 바짝 당기면서 뱃가죽이 딱 눌렸고 둘째로 쇠소리와 인기척 때문에 도무지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 왜 이 자리만 비어 있었는지 그제야 짐작이 갔다.

‘늦게 온 사람에 대한 형벌일까.’ 하는 생각도 잠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에 대한 배려 없는 것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뒷문을 사수하는 나와 뒷문을 뚫으려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사투는 점점 치열해졌다. 나는 지지 않겠다는 의협심(?)이 생겼다. 사람들이 잠긴 뒷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족족 다시 문을 걸어 잠갔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오려

는 사람의 신경질적인 몸놀림과 짜증 섞인 혼잣말.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히죽히죽 웃으며 책에 집중했다.

내가 온 후로 맨 처음 뒷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놀라게 했던 여고생이 또 뒷문을 통해 나갔다. 나는 여고생의 뒤통수를 쏘아보며 문을 다시 걸어 잠갔다. 그런데 복도에서 여고생의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엄마에게 전화가 온 것 같았다. 수시에 떨어졌다는 소식, 그리고 엄마의 호통소리……. 울음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나의 고3 시절이 생각 나 잠시 찌르르해져 있는 것도 잠시, 한 아저씨가 크나큰 한숨소리를 내뿔으며 좁은 틈을 뚫고 뒷문을 열고 나갔다. 한 손에 두꺼운 법전이 들려 있었다. 슬리퍼와 등에 걸친 담요를 보니 오랜 나날을 여기서 보낸 것 같았다.

나는 문득, 뒷문을 보았다.

[Closed]

닫혔다…….

대학시험이라는 닫힌 관문을 열고 대학교에 들어가려는 여고생과 혹은 사법고시라는 관문을 통해 법조인 소속으로 들어가려는 아저씨. 삶에 층층이 들어박힌 시험이라는 문과 그 문을 열기 위해 고단한 사투를 벌이는 우리들의 몸부림……. 닫힌 뒷문을 열고 나가려는 사람들의 그 신경질적인 몸부림을 통해 나는 일순간 우리들 속에 적체된 모종의 분노의식을 보았다.

사실 나 자신도 여기가 아닌 뒷자리 어딘가에 앉았다면 저 먼 앞문까지 가느니 뒷문을 통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겁게 내려앉은 분위기의 이 엄숙한 열람실 안에서 나는 그만 홀로 숙연해져버렸고, 조용히 뒷문의 쇠고리를 풀었다.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내 무의식을 잠식하고 있었던 ‘이 열람실을, 취업 경쟁을, 내일을, 고단함을 뚫어버리고 싶은 억압된 욕망’ 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책을 덮고 가방을 썼다. 그리고 뒷문을 열고 나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내가 차지했던 자리가 다시 빈 자리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 도서관에서 생긴 신선한 착각

---

### ■ 성인부 장려상 맹춘영

벌써 10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처음 유학 와서 생긴 작은 에피소드를 쓰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자면 저는 중국인(한족)으로 중국에서 조선어학과(한국어)를 졸업하였으며 중국에 자리 잡은 한국기업에서 무역 업무를 보았습니다. 이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으며 마침 대학교시절 한국인 교수님의 소개로 한국의 전라남도에 위치한 대학교에 대학원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조교로 일하면서 학비 장학생으로 석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학교에선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이었기에 산더미처럼 쌓인 한국어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끝도 없는 번역 업무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게 되었고 때문에 밤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어 도서관에서 책을 보곤 했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온 첫 외국인 유학생이라서 그런지 주변의 이목을 끌 때가 많았고 특히 남학생들이 자주 말을 걸어오곤 했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호기심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한국남성은 중국남성에 비해 쌍꺼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빼고는 생김새가 그다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여성과 중국여성이 생김새가 어디가 다르냐고 했을 때 저의 첫 한국여대생을 보았을 때 느낌은 짙은 화장을 해서 얼굴을 아주 예쁘게 꾸미는 반면 저는 기름기 없는 멀건 국물처럼 화장을 아예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생얼”로 돌아다녔던 것이죠. 작은 학교여서 그런지 며칠이 안 되어 제가 외국인 유학생이란 걸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으며 특히 도서관에서 공부 할 때면 사방팔방에서 쏠려온 아주 뜨거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육감적으로 그건 경멸의 시선이 아니라 호기심과 관심이 담겨진 시선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주위의 관심 때문에 가끔 불편한 느낌도 들기도 했지만 자신이 이런 ‘독특’한 대우를 받아 그리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언제부턴가 도서관에서 잠깐 밖에 나가 쉬고 들어오면 내 책상에 음료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음료수를 봤을 때 깜짝 놀라서 사방으로 쳐다보며 누가 놓았는지 찾아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책상에 몰래 놓인 음료수를 보며 혼자만의 상상을 펴곤 했습니다. “이렇게 호의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슨 뜻이



있을까?”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나?” 때로는 “이왕이면 멋진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라며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 후로 도서관에 갈 때면 그 사람이 지켜본다는 의식 때문에 공주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도 달라지고 신비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 아닌 노력을 했습니다. 겉으로 아무 일 없는 척 하며 속으론 누군지 모를 그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도서관을 찾는 일이 잦아졌으며 제 지정석(?)의 음료 또한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문화적 차이와 타향살이로 지쳐가던 마음이 그런 신선한 사건으로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현재 대학교에서 교육자로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음료수”의 주인공은 나보다 8살 연하의 대학교 1학년 남자 신입생 이었으며 그는 단지 원어민에게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을 뿐이고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착각은 자유” 라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은 멋있진 않지만 그때 같은 연구소에 계신분과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잘살고 있답니다.

## 엄마와의 조잘 조잘을 위해서

---

### ■ 성인부 장려상 이해수

'너는 참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 엄마가 처음으로 중학교에 입학해 반에서 중간정도였던 성적표를 받아 들고 온 나에게 했던 혼잣말 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내 기억에 도서관에서 산더미같이 대출하고 싶은 책을 쌓아놨을 때도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았었다. 음식도 탐냈고 언니 것도 탐냈고 심지어 한참 어린동생에게 쏟아지는 사랑도 탐을 냈었다. 그렇게 욕심이 많은 아이여서 엄마는 내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어릴 적 주머니 가득 먹을 것을 숨겨 놓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다섯 살 즈음에는 혼자 몰래 오렌지주스를 마시겠다고 밤에 냉장고에서 무거운 유리병을 꺼내다가 떨어뜨려서 온바닥에 유리조각들과 노오란 오렌지주스를 쏟았던 기억도 있다. 나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아이였던 거다.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나의 탐욕의 시작은 아마 먹을거리였던 거 같다. 엄마도 우스개 소리로 우유 한 방울도 안 남기던 애라고 할 정도니

아기 때도 얼마나 잘 먹었던지 하지만 먹고 싶은걸 다 사주기엔 다 해주기엔 그 땐 부모님이 넉넉지 못했다. 그리고 한글을 깨우친 이후에는 책에 대한 탐욕이 생겼었다. 늘 집에서 책을 읽던 아빠를 따라하다가 '아빠만큼 책을 읽고 싶다'고 시작한 욕심이 점점 불어나서 커져버렸다. 하지만 집안사정상 아이들에게 전집은커녕 책을 많이 구입해주지 못했던 엄마는 어릴 적 언니와 나를 서점이나 도서관에 데려다주곤 했었다.

'미녀와 야수에서 벨이 그 커다란 서재 안에 들어섰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숨이 막힐 거 같고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빨리 뛰어서 머리가 멍한 그 느낌 어디서부터 책을 집어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도서관이 나는 너무 좋았다. 학교가 마치자마자 언니 손을 잡고 도서관에 들어가 읽고 싶은 만큼 책을 읽고 나서 마지못해 책을 내려놓고 돌아서곤 했다. 도서관에서도 몇 번씩이나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책이 갖고 싶으면 다음에 엄마와 서점에 들렀을 때 그 책을 찾아 몇 번이나 손으로 쓸어내리곤 했다. 그럼 엄마는 내 마음을 읽고는 한 두어 권씩 책을 사주시곤 했다.

그런 도서관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독서실로 바뀌어버렸다. 시험기간 전이면 교과서를 싸 들고 도서관에 일찍 나가 시험공부를 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자정쯤 특별히 시험 기간이어 늦

계까지 독서실을 열어두던 도서관으로 엄마는 나와 언니를 데리러 천천히 걸어오시곤 했었다. 한참을 우울하게 공부를 하거나, 졸고 있다가 멀리 창가 밖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엄마를 보면 신나는 마음으로 가방을 챙겨 내려갔었다. 사실 그때 나는 공부에는 욕심이 안 생기는 아이였고 교과서 밑으로 몰래 도서관에서 대출받은 책을 힐끔힐끔 훑쳐보고 있곤 했다. 하지만 그런 일상도 미국유학생 활을 시작하며 끝이 났었다.

그래도 잊지 않고 한국에 방학에 돌아가면 한참 자고 일어나서 느지막이 점심을 먹고 도서관을 걸어가곤 했었다. 대학에 가고 나이 스물을 넘어가면서 어른인척하고 싶은 마음에 어려워진 에세이집들도 읽으려 노력하고 나름 읽은 책에 대한 꽤나 어려워 보이는 독후감도 쓰고 싶었다. 그리고 소피의 세계에 나오는 어려운 철학자들의 이름을 하나쯤은 외우고 싶었다. 그렇게 커서 남들이 하듯이 엄마한테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르고 싶었지만 스무해 넘게 입에 붙어버린 '엄마'라는 말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었다.

그날은 좀 특별하기는 했다. 늦게 일어나 또 도서관으로 향한 건 늘 같았다. 하지만 그런데 그날은 엄마가 도서관으로 찾아왔다. 그냥 도서관에 있다가 저녁을 같이 먹고 들어갈까 한다고 엄마가 쑥스럽게 말을 했었다. 대학을 가고 나서 엄마는 도서관으로 날 데리러온 적이 없

었다. 사실 엄마는 나에게 도서관이라는 세계로 인도해준 사람이지만 난 엄마가 어떤 책을 읽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엄마니까. 그냥 엄마다운 책을 읽을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했을 뿐이다. 엄마다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인데 나에게 엄마는 우리학교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는 사람이고 화가 나면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질적이지만 집에서 늘 날 기다려주고 학원과 도서관 앞까지 날 데리러오던 그런 엄마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가 도서관 책장에서 무슨 책을 집는지 유심히 봤었다.

'내려놓음'을 '을 잠깐 꺼냈다가 다시 꽂고 먼 북 소리 같은 몇 권의 여행 에세이 책들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책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결국 엄마는 아무런 책도 집어 들지 않았다. "이거 '엄마를 부탁해' 재밌어 읽어봐." 나도 엄마가 서있던 책장을 기웃거리다가 한 권을 들고 건넸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흔들었다. "싫어, 할머니 생각나." 책을 추천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야 엄마와 딸 사이에 별로 마음 상할 일이 아니지만 그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한테 어떤 책을 권해야할지도 모를 만큼 나는 엄마를 모르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별로 닮지 않은 모녀지간인가!

어릴 적에는 워낙 엄마랑 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안 닮은걸 익숙하게 받아드렸었다. 엄마는 워낙 미

인이었고 아빠를 빼닮은 나는 그냥 이냥저냥 섭섭하지 않은 평범한 편이었다. 그리고 이십대의 나는 엄마와 너무 달랐다. 스물다섯에 엄마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딸 셋을 열심히 교육시켜 멋진 커리어우먼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엄마의 노력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더 흘러봐야 하겠지만... 나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필' '이' '꽃'하는 데로 책을 읽는 사람이지만 엄마는 책에 담겨있는 무한한 감정들이 두려운 사람이었다. “아냐 습관이 되서 안돼. 이제 눈도 침침하고” 라며 엄마는 책을 내려놓는 사람이었다. 가족을 위해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야하며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직 청소년인 막내를 위해서 학원을 쫓아다녀야하고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딸들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다보면 몸이 피곤해서 책장 한 장도 넘기지 못하고 쓰러져 잠에 취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날 나는 무려 여섯 권의 책을 들고 도서관을 나섰고 엄마는 빈손이었다. 오랜만에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나는 재잘재잘 전에 읽었던 책 줄거리를 쏟아냈다. 그럼 엄마는 재미있다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읽어보라며 책을 찾아 내밀면 엄마는 다시 손사레를 칠거였다. 그게 우리 엄마니까!

어릴 적 나는 엄마를 통해서 도서관이라는 세상을 봤었다. 도서관은 엄마가 세상을 나에게 소개해주던 가장 가

까운 장소였다. 책에는 모든 세상이 담겨있으니까 그리고 도서관 창밖으로 서성거리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충만했었다. 이제 그렇게 배운 세상으로 나는 엄마에게 내가 배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럼 엄마에게 설명해줄 것들이 너무 많다.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한해 또 시간이 지나도 나는 또 도서관에 설레는 마음으로 간다. 엄마에게 조잘조잘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 책을 읽는 즐거움이 시작되는 곳

---

### ■ 성인부 장려상 이선경

도서관 입구에 서면 어른이면서도 내 발길은 어린이실을 향한다. 도서관에 오면 수험 공부를 하기 위해 열람실을 찾는 것도 아니요, 발소리도 조심스러운 종합실도 아닌 어린이실 유리문을 힘차게 연다. 가끔 나와 마주치는 어린이들은 ‘저 아줌마는 뭐 하러 여기에 오나?’ 내지는 ‘저런 잘못 들어오셨네요.’ 라는 눈초리라서 민망할 때도 있다.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를 위해 빌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 미혼이라 아이도 없다. 사서 선생님도 동화책을 대출하는 내가 집에 있는 아이를 위해 빌리는 줄 알고, 나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어머니께서’ 라고 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어머니’ 라는 호칭에 당황하여 표정관리가 안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자주 듣다 보니 꽤 익숙하다.

아직 미혼이라 아이도 없으면서 도서관에서 어린이실을 애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선생님, 그 책 선생님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도서관 책이야.”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를 하는 내가 아이들과 가장 자주 하는 대화이다. 도서관을 이용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책 앞표지의 바코드를 신기해하며 용도를 궁금해하기도 한다. 내가 가르치는 ‘독서 논술’이라는 과목 특성상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소개해야 하고, 읽어 줘야 하는 직업이기에 내 가방에는 언제나 동화책이 자리하고 있다.

학기마다 수업 주제를 정하고, 그에 알맞은 책을 선정하여 아이들과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수업에서 주인공은 역시 책이다. 1, 2학년의 경우는 한 학기에 서른 권 정도를 선정하여 매시간 동화책을 소개하고 읽어주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책은 도서관에서 대여하여 이용하고 있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을 자주 찾기도 하지만, 도서관에 오면 좋은 점들이 있다. 책상 위나 트레이에 얹혀 있는 책들을 보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지, 어떤 책을 즐겨 보는지 알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책 선정을 할 때 참고하여 수업에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책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무슨 책을 읽느냐’며 쓸데없이 말을 걸어 보고 머리라도 쓰다듬고 싶을 정도로 대견하여 내 기분까지 행복하다. 요즘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한창 책을 보며 재밌어야 할 아이들이 게임기에서 눈을 못 떼는 것을 보면 씁쓸하고 괜히 한숨이 나는데 말이다.

어렸을 때부터 숨차게 뛰어놀거나 고무줄놀이 하는 데에는 영 소질도 없었고 재미없어 했던 나는 동네에 있던 시립 어린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였다. 그때 도서관은 어린 시절을 함께 한 친구였고, 그때 인연이 이어져서 인지 지금 나에게 도서관은 좋은 파트너이다.

가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소개된 책이 재밌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다시 한 번 봤다고 하거나 서점에서 구입했다고 할 때도 있다. 또 자기가 도서관에서 본 책이라며 나에게 소개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럴 때 아이들의 눈을 보고 있노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낀다.

책을 읽는 즐거움은 도서관에서 시작된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더 많은 아이들도 그 즐거움을 느껴주면 한다.

## 일 하는 기쁨

---

### ■ 성인부 장려상 엄양현

도서관 사서 도우미를 하면서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막상 ‘도서관에서 생긴 에피소드’란 공모 글 제목을 보니 무엇을 써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고 막막하기만 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숨 가쁘게, 혹은 한번 쉬고 올라가야 했던 구립도서관에서의 3년은 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뻐 넓은 종합자료실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다.

친절하고 상냥한 사서선생님들과도 가족처럼 잘 지냈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과도 친분을 갖고 맛있는 것도 더 받아먹고는 했다.

틈틈이 좋은 책도 읽으며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글쓰기 공모전에도 응모하는 등 많은 잊지 못할 추억들이 만들어졌다. 그 후 1년은 이동도서관에서 일해 보았다. 대형 버스에 많은 책을 다 준비해 싣고 주민이 많은 아파트단지나, 군부대, 혹은 큰 마트부근을 찾아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작은 도서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큰 마트 앞에서는 대로변에 차를 세워 놓으니 자기 점포 간판이 가려 안 보인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지식과 교양과 온갖 만물상을 가득 담아 편리하게 쓰라고 베푸는 도서관의 속 깊은 사랑과 봉사의 마음은 외면하고 차 다른 곳으로 빼라고 항의하는 무례한도 있어 안타까웠다. 반면 군부대에 가면 고등학생 티도 벗어나지 못한 애 띠 사병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 책을 고르고 차안이 온통 늠름한 군인들로 가득하다. 가끔은 반짝이는 계급장을 단 장교님이 올라와 차안 가득히 책을 읽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 사병들의 모습을 말없이 한참을 지켜보고는 흐뭇한 표정으로 내려가신다. 그런 때는 내 마음도 절로 흐뭇하고 모두가 아들 같아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어떤 부대에서선 추울 때는 따끈한 차를, 더운 여름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대접 받는 복된 시간도 갖는다. 오른 쪽 무릎에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비교적 교통이 편한 증산정보도서관을 택했다. 마침 구립도서관에서 정 들었던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 곳으로 와 계셨고 더구나 김 관장님을 만나 더욱 반가웠다. 구립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함께 일했던 예쁘고 총명해 인기 많았던 사서 선생님이 그간 결혼하여 만삭의 몸으로 어린이 열람실로 전근되어 와 있음을 보고는 반가워, 뒤 늦은 축하를 해주고 임신한 모습도 너무 예뻐 가슴 벅찼던 에피소드!! 출산을 앞두고는 그만 두어 지금은 영금영금 기어

다니며 재롱부릴 아가를 보며 행복해 할 선생님 영원히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 주기를 바란다.

반면 ‘올 가을에는 청첩장 드릴게요!’ 했던 P선생은 가을이 두 번이나 지났는데 언제쯤 청첩장을 보낼 수 있을까? 증산에서는 모자열람실에서 일했다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책을 읽어 주며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읽어 주는 재미있는 동화는 일하고 있는 나의 귀에도 구수하게 들린다. 또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와서 숙제하고 있다가 엄마가 퇴근하면서 함께 가는 어린이들도 있다.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정보도 나누며 휴식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때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있는 대로 책을 빼놓고 금방 정리 해 놓은 책들이 다 쏟아져 내리고 휘 집어 놓는 아기들도 있어 신경이 쓰이지만 그 뒷정리는 내 할 몫이니 뭐라 할 수가 없다. 여기 모자 열람실에는 두 분 선생님이 있다. 서너 살 아이들이 모여 뛰고 소리치며 번거롭게 하여 우리도 짜증이 나건만 이 두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시종 일관 미소로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며 대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존경스럽다.

매주 두 번 씩 지하철을 오르내리며 나는 힘차게 도서관을 향 한다. 제 자리를 찾아야 할 책들이 나를 기다리고 수선할 책들이 내 손길은 기다린다. 명년 봄에 다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변함없이 열심히 할 것이

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서관은 영원한 나의 일터이고  
기쁨이고 희망이다.

관장님께 감사드리며 사서 선생님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한다,

‘도서관에서 생긴 에피소드’ 에 이 글이 합당한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 도서관에서 생긴 에피소드

---

### ■ 성인부 장려상 윤슬

나는 현재 전북에 있는 우석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전체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많진 않지만 지나치는 사람들의 반이 중국인일 정도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교이다. 하지만 유학생들은 가까운 듯 멀었고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렇게 1학년 2학기가 되었고 우연히 스웨덴에서 온 한 잘생긴 유학생을 알게 된 이후로 도서관의 에피소드가 시작되었다.

‘어쩔 저렇게 잘생긴 애가 다 있나’

조나단이라는 이름의 그 스웨덴 유학생과 친해지고 싶어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던 찰나 그 스웨덴 유학생이 학교 도서관에 자주 있다는 이야기를 교회언니를 통해 듣게 되었고 그렇게 나는 조나단을 보기 위해 매일매일 학급 도서관에 밥 먹듯 가기 시작했다.

2층과 3층은 독서실, 1층은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꾸며진 학습 도서관. 재밌게도 1층의 한 쪽은 이미 내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과 친분이 있는 유학생들의 고정석이였다. 물론 전도사님은 그 스웨덴

유학생 조나단과도 친분이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조나단과 마주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나는 조금은 생뚱맞지만 주변 유학생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거일 매일매일 가다보니 인사만으로도 익숙해 진 친구들도 있었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내 예상 밖으로 너무도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 일본은 물론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수단, 미얀마, 미국, 캐나다까지..... 그리고 나는 조금씩 그들과 친구가 되어갔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각국의 나라 학생들이 모인 테이블은 항상 웃음이 흘렀고 나 역시 그들이 점점 좋아졌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과는 서로 도와주면서 친구가 되었고 한국말을 이상하다 싶을 만큼 잘하는 친구와는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며 더욱 더 가까워졌다. 그 중에는 조이르라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한국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해서 다른 외국인 친구들의 한국말 공부를 도와 줄 정도다. 이국적인 외몬데 구수한 사투리까지 섞어가며 청산유수로 이야기 하는 걸 보면 절로 웃음이 나고 한국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껴서 가끔은 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다.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대체로 한국말을 잘 못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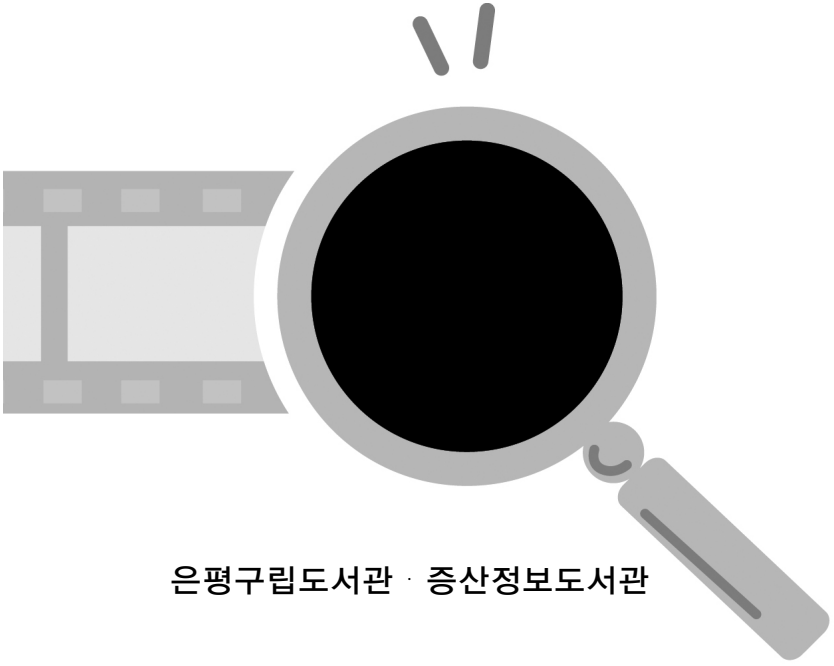


나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면 중국 친구의 말에 집중하다가도 그 빠르고 역센 발음에 웃음이 나오고 만다. 수단에서 온 모하메드라는 친구는 30살이 넘었는데 한국의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아직은 서툰 점이 많지만 외국 친구들 사이의 한국어 선생님 조이르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고 모하메드 역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도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고 조금은 뿌듯한 마음도 든다. 그렇게 외국 친구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한국에 내가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학습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기숙사로 돌아 갈 때 나는 항상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간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고민을 나누면서 돌아오는데 그 시간은 이제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외국인 친구가 아무리 서툴게 한국말을 하더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어느새 친구가 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요즘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나에게 큰 기쁨들을 주는 그들에게 너무도 고맙다.

잘생긴 스웨덴 유학생 조나단과 나는 현재 인사만 할 뿐 많이 친해지지 못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어 조금도 아쉽지 않다.

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들에게 웃음이고 싶고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다. 학습 도서관이란 내게 무엇일까? 아마도 나에게 학습 도서관이란 딱딱하게 공부만 하는 곳이라기 보단 다시 찾기 힘든 학창시절의 시끌벅적한 하지만 편한 친구들이 있는 교실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도서관 친구들과의 즐거운 에피소드들이 기대된다.



은평구립도서관 · 증산정보도서관

## 도서관 찾아가기는 어려워!

---

### ■ 청소년부 대상 조운

내가 처음 한글을 배운 시기는 6살이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했고 초등학교에 들어서 많이 읽었다. 우리 집은 책을 좋아하는 가족이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모두가 책을 읽었다. 어릴 때는 내가 고른 책보다 엄마가 고른 책을 많이 읽었지만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았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학교 도서관밖에 안 가본 나는 엄마와 처음으로 은평구립도서관을 가기로 했다. 나는 너무 신이 났다. 매일 집에 있는 책만 읽기도 지겨웠고 또 학교 도서관보다 훨씬 크다는 소리를 듣고 기대가 컸다. 엄마와 나는 버스를 타고 은평구립도서관을 갔다. 높은 언덕이 있어 힘들었지만 도서관에 도착하니 입이 안다물어졌다. 도서관 안은 온통 책만 있었다. 아주 어린아이 책부터 어른 책까지 책장 가득 책이 꽂혀 있었다. 나는 너무 좋아서 도서관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중히 내가 보고 싶은 책을 고른 뒤 앉아서 책을 보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곧 저녁이 되었고 집에 가야 했다.

나는 아쉬워서 좀 더 있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책을 빌리고 싶었지만 대출증을 없어서 빌릴 수 없었다. 나는 다음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매번 나를 데리고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인 내가 혼자 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래서 7살인 동생과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다. 그래서 엄마는 은평구립도서관을 가는 길을 종이에 적어주셨다. 북잡했지만 지난번에도 갔으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동생과 함께 친구를 만났다. 그 때 우리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과 7살 동생이었다. 나는 약간 불안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도서관이 있는 동네까지 왔다. 생각보다 쉬워서 안심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부터였다. 골목이 많아 어디로 가야 도서관이 나올지 헷갈렸다. 분명 언덕을 올라간 것 같았는데 사방이 언덕이었다. 내 친구는 정말 길을 아냐며 물었고 동생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해서 일단 잘 모르는 길로 가보았다. 그렇게 계속 언덕을 올라가다 골목길도 가보고 또 올라가고..... 하지만 은평구립도서관은 어디에도 없었다. 분명 멀리서 건물은 보였는데 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내려가서 다른 사람

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때 마침 경찰차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 아저씨에게 물어보았다. 다행히도 경찰 아저씨가 친절히 알려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간신히 도서관에 도착했다. 나는 도서관이 너무 반가웠고 안심이 되었다. 잘못하면 길을 잃을 뻔 했으니 말이다. 생각보다 도서관에 도착한 시간이 늦어져서 책을 읽을 시간은 부족했지만 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다.

해가 지려고 하자 우리는 다시 집에 가기로 했다. 우리끼리 오느라 길을 헤매서 피곤하고 힘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도서관을 갈 수 있어서 좋았다. 집에 오자마자 나와 동생은 잠이 들었다.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 날은 행복한 하루였다.

지금 나는 중학교 3학년이다. 지금도 나는 책을 읽는 것이 좋다. 한글을 깨우쳤을 때부터 읽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읽고 싶은 책이 많다. 책을 좋아하시는 우리 엄마께서는 항상 나에게 말한다.

“책은 어렸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란다. 평생 읽어야 하는 것이지. 엄마도 몇 십 년 동안 책을 꾸준히 읽어왔어. 하지만 아직도 읽은 책보다는 읽어야 할 책이 더 많아. 엄마는 만화책이든 소설책이든 어떤 책을 읽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단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우리들에게 만화책도 좋은 책이라며 읽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 여느 가족들과 다르게 우리 가족은 저녁을 먹고 책을 본다. 각자 좋아하는 책을 보며 서로 이야기 해주고 또 감동받은 구절도 들려준다. 그리고 때때로 엄마와 나는 같은 책을 읽고 얘기도 한다. 각자 다른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하다보면 서로 인상 깊은 구절이나 장면도 다르다. 그럴 때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책을 읽으면서 가족과 더욱 친해졌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알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책을 읽고 나면 독후감을 쓴다. 줄거리를 쓰고 내 생각을 쓸 때면 항상 고민한다. 책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독후감을 쓸 때 다시 한 번 책을 보고 또 생각한다. 독후감을 쓰다 보니 책을 읽을 때 더 꼼꼼히 읽게 되었고 또 감동받은 구절을 적어 놓아 독후감을 쓸 때 인용한다. 예전에 그냥 책만 읽었을 때에는 나중에 그 책을 떠올릴 때 한참 걸렸다. 하지만 독후감을 쓰고 생각한 책들은 나중에도 잘 기억이 난다.

이제 나는 고등학생이 된다.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를 해야 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들었다. 앞으로 중학교를 다니려면 몇 개월 남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다. 나는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 인문학 책은 읽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읽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들게 해서 좋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인문학 관련 서적들을 계속 읽고 싶다. 또 내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내 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우리 주위에서 멀리 있다. 멀리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도서관이 집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대부분 우리 주위에 있지 않다. 규모도 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다.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작은 도서관이 일정 간격마다 있다면 누구나 도서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아이들 주변에 도서관이 가까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위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되기가 어렵다면 주변에 흔히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주민 센터, 파출소, 구청 등 남는 공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그 여름날의 도서관

---

### ■ 청소년부 최우수상 신웅섭

2년 전 여름, 나는 도서관에 관한 자그마한 추억이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여름방학부터 시작된다. 책이라고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고작해야 만화책이나 읽던 나에게 어느 날 한통의 전화가 왔다. 나는 그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라고 한 나의 말에 전화를 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 승빈인데 요즘 잘 지내냐?” 방학을 하고 2주 만에 승빈이한테 전화가 온 것이다. 며칠 지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기분이 좋아졌었다. 그리고 이내 곧 승빈이는 나에게 도서관을 가자는 말을 했다. 나는 만화책도 보고 에어컨도 썰끔 그렇게 서대문도서관으로 떠났다. 나는 정말로 나중에 닥쳐올 일을 알았다면 어쩌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덜컥거리는 버스를 타고 한참 승빈이와의 이야기꽃이 필 때쯤 버스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다.

서대문 도서관에 도착하고 처음 그 광경을 말하자면 엄청난 책들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았다. 내 생애 처음 갔었던 도서관이었을 뿐더러 이렇게 많은 책들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다. 나는 곧 정신을 차리고 문제집을 펴고 공부를 하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았다.

한 세권쯤 봤을까? 나는 웬지 모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많은 책들 사이에서 고작 만화책을 본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기엔 창피하기도 하고 책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책들을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참 주위를 돌다가 나는 15소년표류기 라는 짧고 재밌어 보이는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을 천천히 훑어보며 자리고 가는데 누군가와 부딪쳤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녀를 봤다. 처음에는 죄송한 마음에 사과를 몇 번 하고 나는 자리로 돌아갔다. 처음 돌아갔을 때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걸 느꼈다. 처음에는 내가 무안하고 죄송해서 이러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집에 가서도 이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미사연구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계속해서 느껴졌다. 그렇다 그건 사랑인 것이다.

나는 그 날 이후로 그 떨림을 좀체 진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을 최대한 많이 가려했다. 도서관에 가면 항상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럴 때 마다 나의 입가엔 자그마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방학이 몇 주 남지 않았을 때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다. 설사 받아주진 않더라도 나의 마음을 한번 말해주고 싶었기에……. 나는 그래서 이런 나의 마음을 담아 편지지에

최대한 예쁜 글귀와 작은 선물(머리핀)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씩 계속 뜨거운 열병을 앓다 이내 그 감정을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가슴이 미어지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짝사랑이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리워진다. 지금의 나는 그저 평범한 15살 중학생이지만 그리고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따금씩 어릴 적의 그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되뇌어 보기도 한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 작지만 큰 상림마을 도서관

---

### ■ 청소년부 우수상 도민성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올만큼 추운날씨이기 때문에 도서관 가는 일이 드물어졌다. 그래서 내 책상에는 항상 읽었던 책들만 놓여 있었다. 빨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픈 마음도 들었다. 근데 도서관에 자주 못가는 이유가 또 있다.

현대 아이파크에서 살았을 때는 바로 집 앞이 도서관이여서 주말에 심심 할 때 도서관에 갔었지만 롯데 캐슬로 이사 간 후부터는 자주 못 들렀다. 그래서 책을 제때에 대출하지도 못했다. 최근에 도서관을 갔을 때가 봉사활동 하러 갔을 때였다. 아직도 1시간도 못 채워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채우려고 봉사 하려는 마음으로 갔다. 가서 도착했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직원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서 난 화장실에 있는 마른 걸레들 물에 적셔 책 받침이나 책상, 창문틀, 바닥 등을 닦았다. 시간이 짧아 많은 것을 도와 드리진 못했다. 하지만 다음번엔 확실하게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도서관이 책

만 읽거나 공부하기만 하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공간일 것이다. 도서관에 있는 한정된 공간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떠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공간에서 예절을 배울 수 있다. 또 선생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어, 스스로의 공부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한다. 난 도서관을 이렇게 생각해봤다.

도서관을 통해서 난 깨달은 점이 많다.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이 수 없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에 와보면 정말 많은 책들이 있다. 이런 환경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기에 있는 모든 책의 지식을 합친 거에 세 발의 피 신세를 받을 정도로 난 작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에 자주 와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아이들은 시각에 민감해서 만화책만 읽는 경우가 많다. 만화책의 대부분은 그림이 거의 공간을 차지해서 글이 적다. 그래서 책을 빨리 읽기 마련이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도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소설책을 권하는 이유가 이젠 뭘지 알겠다. 만화책을 읽으면 생각이 단순해 질수도 있고 학업에 방해될 수가 있어서 읽지 말라는 강제성 있는 계획은 난 오히려 읽는 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린이에게 무조건 강제성이 있거나 획일화를 시킨다면 어

린이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 불만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도록 충동적이거나 잔혹성이 있는 만화책보다 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줄 수 있는 좋은 만화책들이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위와 같이 어렸을 때는 무서운 만화책을 좋아했다.

하지만 도서관을 다닌 뒤부터 소설책의 재미를 알았고, 소설책을 사거나 빌려서 많이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PC방 가는 걸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다. 친구들이 계속 가자고 해도 나는 PC방의 담배 냄새나 불량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가지 않는다. 나는 이 친구들과 같이 PC방 보다 도서관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도서관은 좀 더 재미있는 문화공간을 만들면 내 친구들이 도서관으로 와서 재미있게 즐기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나는 도서관이 책을 읽는 문화공간을 조금 더 발전시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문화공간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 나는 도서관과 함께 자랐다

---

### ■ 청소년부 장려상 김진휘

우리가족은 도서관과 인연이 많다. 처음 도서관 근처로 이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친척들도 도서관과 깊은 인연이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삶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족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03년 3월에 이 동네에 이사 왔다. 엄마아빠는 도서관 옆집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이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나는 초1때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찰흙 도예 반에 들어갔다. 첫날 수업에서 찰흙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찰흙은 건강에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 찰흙 만들기를 하기 전에 찰흙냄새를 맡을 거예요.” 이 때문인지, 나는 지금까지도 찰흙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곳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꽃모양접시가 지금도 우리 집 벽에 걸려있다. 지금은 나보다 일곱 살 어린 동생이 찰흙 도예 반에 들어가서 7년 전과 비슷한 레퍼토리를 만들어 온다.

초2때부터는 만화미술반이라는 곳에 들어갔다. 만화미

술반은, 미술 중에서도 만화를 중심으로 표현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개설된 반이었다. 그곳에서는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만화로 표현하거나, 과자로 집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어느 날은 남산에 있는 만화박물관을 견학하여 만화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느껴보기도 했다. 만화미술반에서 배운 만화그리기 실력으로 중학교에 와서 수행평가로 수학만화를 그렸는데, 나의 작품이 일 년 내내 수학교실에 걸리기도 했다.

2009년 여름방학에는 ‘청소년에게 말 걸기’ 라는 특별강좌를 통해 철학, 문화, 과학, 환경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였다.

그해 9월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수업’ 에 참여하여 글쓰기를 통해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친구들의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머리가 장발인 윤성근 작가선생님과 중학생 다섯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중 한명이 나다. 나의 모습이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 장식하고 있을 줄이야!

2004년 가을에는 우리씨족사회 전원(큰이모네, 우리가족, 막내이모네)이 ‘시 백일장 대회’ 에 출전하였다. 거기에서 우리 외삼촌은 “시월의 도서관” 이라는 시를 써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모는 “별교의 가을” 이라는



시를 써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상을 받는 이모의 사진이 아직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남아있어 놀랍다.

이렇듯 도서관은 나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도서관과 가까이 지냈다. 한가한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시험기간에는 열람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아쉽다. 앞으로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논술이나 문화체험, 독서토론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는 제1번으로 등록할 것이다.

## 도서관에서 생긴 일

---

### ■ 청소년부 장려상 김승욱

제가 쓸 에피소드는 도서관에서 받은 따뜻하면서도 따끔한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평소에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감기가 오면 바로 기침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가는 일조차도 엄청난 고심 끝에 내려야 하는 결정입니다.

굉장히 심사숙고 하여서 제가 도서관을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침이 심한 상태였지요. 저는 거의 습관처럼 콜록콜록 거리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지만 주위사람들이 시끄러워 합니다. 목을 축축하게 적시기 위해서 도서관 앞 매점에서 음료를 사먹기도 했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이 없이 기침을 한다고 해도 제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 앞에 흰 종이컵을 들이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도서관 카운터에 계시던 멋진 직원 분이었습니다. 직원 분께서는 제게 기침이 심하다고 하시면서 녹차를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정말 당황스럽고 모

든 사람들이 ‘뭐지?’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얼떨결에 고개만 끄덕이고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녹차는 아끼고 아껴서 세 번, 네 번 따뜻한 물에 우려먹었습니다.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마음 따뜻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찌면 녹차를 주신 것이 기침이 너무 심하다고 조금만 자제해 달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온몸에 열이 돋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도 그 의미심장한 녹차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지만 염치없는 저는 그 녹차가 단순한 친절이라 생각하고 요즘에도 도서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돌려 말하기 방식으로 저에게 교훈을 주신 반면에 굉장히 직설적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직설적이신 분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제가 시험기간이 되어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도서관을 들렀을 때였고 다른 한분은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시험기간에 제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신 분은 중년의 남성이셨는데 아주 딱 잘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 감기 나올 때까지 도서관 오지 마.” 그날은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도서관을 간 것이었는데 가자마자 그 말을 들으니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뭔가 모욕을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니 그 때는 신중플루가

유행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연히 도서관에서 기침을 하는 것도 예의 없는 행동이었지요. 그래도 저는 다음 날에도 기침은 안하려고 숨을 참으며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직설적이셨던 그분은 참 특이하셨습니다. 직설적이지만 뭔가 소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꼭 끝내고 만다.’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풀던 중 책 위에 어떤 분께서 포스트 잇을 붙이고 사라지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저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숙연해지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서관에 오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기침을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예의가 아니라며 저를 일깨워 주셨고 기침이 많이 나신다면 밖에서 음료라도 사 드시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다. 아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빨갱게 익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세 분 덕분에 도서관에서의 예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열해서 기침이 심하고 건강이 나빠 보이지만 저 감기 안 걸리면 그렇게까지 기침이 심하진 않답니다.

## 도서관에서 생긴 에피소드

---

### ■ 청소년부 장려상 우성관

내 이름은 우성관 중학교 1학년이다 때는 중학교 2학기 중간고사 2틀째날 집에 와서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

그렇다 문득 책에서 읽은 미래 인생에 관한 생각이 갑자기 심각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나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비슷하게 사는 친구 명진이랑 도서관에 갈려고 명진이한테 전화를 했다 이 친구는 아직 미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처음에 명진이는 도서관에 가기 싫다고 했다 내가 계속 가자고 졸랐다 그래서 명진이가 자기 집에 찾아오면 가겠다 해서 명진이 집을 찾아서 명진이랑 같이 은평구립도서관에 갔다. 거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형이랑 같이 많이 갔던 곳이다 하지만 그곳에 갈려면 산을 넘어서 가야했다. 오랜만에 그 산에 오르는데 산이 잘 포장되어 있었다. 계단을 따라 쪽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명진이한테 말했다 너 지금처럼 살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게 된다고 지금이라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명진이한테 당부에 말을 했는데 명진이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듯했다.

산 정상에 올라와 맑은 공기를 맡고 산 아래로 내려가 도서관에 가는데 내려가는 길이 태풍 때문에 약한 위험했다. 산 아래로 내려와 드디어 은평구립도서관에 들어가는 데!! 옛날에 와봤지만 이 도서관은 참 크고 멀리서부터 좋은 책 냄새가 났다.

도서관에 들어갔다 나는 문제집도 없고 교과서만 들고 갔지만 명진이는 문제집을 들고 왔다. 도서관에 들어가자 학교친구들을 만났다 개네들도 공부하러 왔나보다. 그 친구들은 평균 90점을 넘게 맞는 대단한 녀석들이었다. 나와 명진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난 어릴 때 만든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놓고 와서 못 들어갔다 그리고 명진이가 아이디어가 없어서 친절한 점원께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같이 명진이의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인증번호 때문에 만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합자료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종합자료실을 들어가는데 그곳은 복층이었다.

방도 엄청 크고 층도 두 개나 있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내려가 보니 책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석에 숨어서 공부를 하기로 했다 저쪽 구석에 숨어서 공부를 하는데 구명진 이 자식은 왜이리 소란스러운지 짜식 땀에 공부에 집중이 안 다.

잠시 후 저쪽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가서 공부 하는데 구명진이자식이 공부는 안하고 이상한 책을 뽑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공부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잠을 깨려고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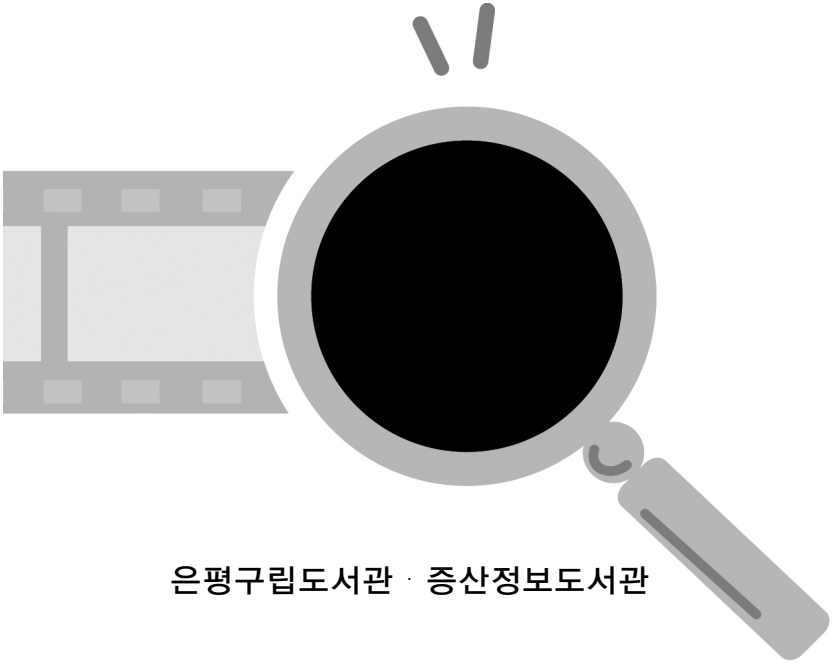
근데 보니 여기는 계단이 있었다. 멀쩡한 길을 내버려 두고 험한 길로 내려왔다. 그리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리고 도서관에 들어가 잠시 두리번두리번 하고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는데 친절한 사서 아저씨가 “뭐 찾는 거라도 있니?” 하고 물어 봤다. 여기는 돌아다니기만 해도 친절하게 찾는 거 있냐고 물어봐주는 친절한 사서 아저씨들도 있고 예전부터 보았지만 참 좋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심심하고 배도 고파서 식당에 갔다 이곳 식당 밥은 끝내준다! 엄마랑 자주 왔을 때 엄마가 많이 밥을 사주셨는데 메뉴가 다양하고 밥도 항상 뜨끈뜨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또 반찬은 얼마나 맛있든지 도서관 식당 중에 이렇게 맛있는 밥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고 올라가 공부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나왔다.

오랜만에 도서관에 와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하고 간다. 다시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힘들어졌다. 산에 올라와서 쉬고 다시 내려가 우리는 집에 각자 갔다.

오랜만에 은평구립도서관에 갔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달라진 곳은 새로웠고 달라지지 않은 곳은 옛 추억이 남아 있어서 좋았다. 은평구립도서관은 개인적으로 참 좋은 곳이다.





은평구립도서관 · 증산정보도서관

## 원숭이가 된 나

---

### ■ 아동부 우수상 송문영

항상 여기 증산정보도서관에 오면 내가 원숭이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 날이 떠오른다. 아직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갱게 될 정도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내 성격은 워낙 소심해서 이런 것 하나로도 부끄러워진다. 그러니까 내이야기는 2009년 겨울에 있던 일이다. 나는 그 날 엄마의 심부름으로 책을 반납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동생이 읽은 책을 반납한 후 어린이 책을 빌리려는데 이런! 재미있는 책을 사람들이 죄다 빌려갔다. 그래서 어찌면 더 많은 자료가 있는 도서관을 찾았다. 내가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다들 나를 쳐다보았다. 주위를 보니 죄다 어른들이었다. 췌! 내가 동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책을 고르는데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사서선생님이 이 책은 못 빌린다고 하였다. 아... 그때 잠시 절망에 빠졌다. 내가 꼭 읽고 싶었었는데..... 근데 사서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학생이라 해서 초등학생 티가 팍팍 났었다. 이때만큼은 나도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

다. 결국 내가 두 번째 보고 싶어 했던 진자운동, 헬리에 대한 책을 보게 되었다. 잉~ 난 꼭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만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할 텐데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도서관의 묘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 서오릉 에피소드

---

### ■ 아동부 장려상 이동훈

일단 내가 직접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서오릉에 도착했다.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서오릉 앞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와있었다. 서오릉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 룡을 살펴본 후 조사할 룡으로 향하였다. 나는 주위에 스며드는 햇빛과 흥겨운 새소리에 춤을 췄다. 그 출씩거리는 모습에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는 소리 까지 들었다. 그리고 종이로 언덕에서 스키 타듯이 내려오기도 했다. 그런데 왕룡을 보는데 이곳저곳 돌에 움푹 파인 흔적이 보였다.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6·25 전쟁 때 UN군이 낸 흔적이라고 한다. 그런 흔적에 나는 잠시 화가 났었지만 다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한 일이라 참았다. 그리고 드디어 조원들과 함께 조사할 룡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식이 별로 없어서 큰 도움이 되진 못했지만 조원들이 잘해줘서 기뻐다. 드디어 발표를 했다. 마음대로 발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뻐다. 서오릉을 나가려고 정문으로 향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춤을 췄다. 나는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다.

## 에피소드

---

### ■ 아동부 장려상 김다빈

‘역사랑 책이랑 놀자’ 에서 서오릉을 갔는데, 언덕(강)을 올라갈 때,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올라가서 정상에 도착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올라가 정상에서 아래까지 구르거나, 썰매를 탔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며 내려오는 그 느낌이었다.

그리고 경복궁으로 갔다.

경복궁에 갔을 때는 땀벌에서 걸어 다니고, 구경해서 너무 숨이 차고 다리가 너무 아팠다. 피약벌이라 머리까지 아팠다. 하지만 경치와 여러 궁(경복궁까지 포함)들은 정말 멋진 풍경을 뿜내고 있어서 그나마 아픈 것들을 잊을 수 있었다. 나중에도 시간이 된다면 서오릉이나 경복궁을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서오릉, 경복궁을 추천 장소로 추천해 주고 싶다.

## 역사와 책이랑 놀자 프로그램 에피소드

---

### ■ 아동부 장려상 김근영

‘역사랑 책이랑 놀자’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더욱 더 많이 알 수 있었다. 놀러 다닐 수 있는 토요일 날에 와서 역사를 배우니까 조금은 힘들었지만 역사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생기니 좋았다. 퀴즈도 풀고 책도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니까 재미있었던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다리고 아프고 기운이 다 빠졌다. 제일 재미있었던 건 인사동에 가는 것이었다. 인사동에서 구경을 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모르던 것도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게임도 해서 지루함을 달래주었다. 하루를 빠져서 아쉽기도 하였지만 다른 상을 받아서 좋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또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2010 은평구립도서관 · 증산정보도서관 글쓰기 공모전

---

- **발행일** : 2010년 12월
- **발행인** : 엄무성, 김규순
-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8 가길 13-84  
전화 (02)385-1671~4  
홈페이지 [www.eplib.or.kr](http://www.eplib.or.kr)  
증산정보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5길 6  
전화 (02)307-6030  
홈페이지 [www.jsplib.or.kr](http://www.jsplib.or.kr)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구립도서관 · 증산정보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8 가길 13-84

전화 (02) 385-1671~4

홈페이지 [www.eplib.or.kr](http://www.eplib.or.kr)

증산정보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5길 6

전화 (02) 307-6030

홈페이지 [www.jsplib.or.kr](http://www.jsplib.or.kr)